

축 사

“고려불화대전-700년 만의 해후” 특별전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고려불화는 1700년간 우리민족과 성쇠를 함께 해온 한국의 불교와 불교문화재들 가운데서도 그 가치와 우수함을 인정받아온 불교문화재 중 하나입니다.

고려불화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80년대 초반 일본에서 초유의 고려 불화전이 있던 이후부터입니다. 그 이전까지는 중국의 불화로 이해되어 왔고 한국에 남아있던 불화역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.

그 후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이 불화가 중국의 것이 아닌 고려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고, 시간이 흘러 마침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고려 불화가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 우리 땅에 있었던 그 시절과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 유려한 필선과 아름다움은 그때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.

때로는 누군가에게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, 극락으로 인도해 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,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국난을 극복하는데 부처님의 힘을 빌리고자 마음을 모아 불화를 조성하였을 것입니다. 이 고려불화는 그림에 그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염원과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나라의 보물이자, 우리가 기억해야할 역사이며, 자부심입니다.

이 고려불화들이 700년 만에 고향땅을 방문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학예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여러 사부대중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이번 고려불화대전은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우수함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또한 해외의 불화들을 한 자리에 전시함으로써 우리불화만의 예술성과 우수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

20101011 고려불화대전

다시 한 번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개막을 축하드리며, 국립중앙박물관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축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

불기 2554(2010)년 10월 11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